

辯證法的唯物論

蘇哲仁

「社會的 政治的 及精神的生活過程은 一般的으로 物質的 生活的 生産方法의 規定을 받는다. 人類의 意識이 그 存在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히 그 모든 것의 社會的 存在가 그 意識을 決定한다.」 이와갓치 함으로써 人間의 社會生活에 있어서 上層構造에屬하는 觀念形態로 말하면 根本的으로 엇더한 規定을 맞는가를 明確하게 把握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注意할 것은 上層構造에屬하는 意識의 모든 形態가 人間의 意志와는 獨立하여 잇는 生産關係의 規定을 맞는 것이 根本的 說明이며 原理的 解說이지만 또한 便에 있어서 上層構造가 根本的으로 모든 意識形態를 規定하는 生産關係에 對하여 反作用 即 다시 影響을 준다는 것을 忘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社會的 意識形態의 發達은 下層構造에 對하여 만흔 影響을 주며 또는 社會的 意識形態 相互間에도 서로 影響을 준다. 畧言하면 相互作用이 잇는 것이다. 그러나 이 相互作用만을 觀察하며 그것만으로써 그것을 理解하려고 하는 때에 여러 가지 矛盾과 誤謬가 發生하는 것이다. 即 우리는 相互間의 相互作用을 確實히 觀察하는 同時에 그 根本的 原理를 忘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갓튼 關係로 말하면 人間의 活動過程中에 即 人間相互間에 發生한 것이기 때문에 人間의 活動과 獨立的으로 發生할 수는 到底히 不可能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갓튼 關係는 人間의 希望如何와는 正反對의 方法으로 變化할 수 잇는 것이며 또 變化하는 일이 頗多하다. 그런故로 人間은 그들의 歷史를 그 自身이 만들지만은 그것은 決然하게 限界가 作定되어 잇다고 한 社會에 있어서도 共同意思에 依한 共同計劃下에 決定되는 것은 아니다.」 即 여기에는 必然性이 支配하고 잇다. 여기에서 「人間의 活動이란 自由스러운 活動이 아니고 必然的 活動으로써 換言하면 合法則的인 것 또는 科學的 研究의 對象될 수 잇는 것으로 想定되어 잇다.」

社會的人間이 自然과 生活鬪爭을 行하며 또 各種社會群과 生活鬪爭을 行하는境遇의 모든條件과 必要에應하여 科學이란것이 發生한다. 一野蠻人은 여러가지 方面에 經驗을가지고있다. 그들은 有毒植物과 食用植物을區分하며 獵獸의 足跡을싸라서 猛獸와 毒蛇를避할줄을안다. 그들은 火며水를 自己의目的때문에使用하며 石片이며 木片을 自己들의武器로 選擇하여金屬을溶解하며 그것을加功할줄을안다. 그들은 손가락으로써 數를計算하며 手足을 使用하여 物件의數量을測量한다.」 生産의利害가 科學의發達을刺戟하며 그를發展시킨다. 그런故로 科學的思考方法과 그發達은 그社會를反映한것이다.

二

人間社會가 物質的으로함을싸라서 그것이 人間의意識에影響을주며 그것을刺戟하며 社會意識의 發展과人間社會에對한 要求와 欲望을促進하는것이다. 그것은 近代의世界觀이 처음始作된 只今으로부터 二千年以上 發展하여 내려온希臘에잇서서의 歷史를보면 明白하게 表示되어잇는것을 알수있다. 今日의 辯證法的唯物論은 그것을 엮던一個人이 創始하였스며 그것이偶然하게發生된 것이아니다. 그것은 古代希臘時代로부터長久한歲月을繼續하여 鬪爭한結果로써의 產物이다. 即「辯證法的唯物論은 이와갓튼發展의 最後의 最高의階段이며 歷史上으로 第一最初時機까지 그源泉을 探究하며論할수잇는 鬪爭의 最後의 尖端이다.」

希臘의 그最初期에는 小亞細亞沿岸에잇서서의 希臘人들의 商業이 尖端發達하였스며 싸라서 希臘人이맞은影響이 만었다 그런故로그結果가 希臘人에게 엮던衝動을주엇스며 그것이 今日에잇서서 論하게되는 一般的으로말하는哲學의 起源이된것이다. 그러나여기에서注意할것은 古代의希臘時代에잇서서 發達된 一般的社會意識形態로 말하면 그것이 今日의것과갓치 明白하게 區分된것 即專門的으로 區分되어잇는것이아니고그自然 人間에對한 思想과經驗이란것이 總括的이엇다. 그런故로 「哲學」이라고名稱하는가운데는 今日에잇서서의 自然科學(形而上學) 等 一般的科學을 全部包含하여 論하였다. 그러기때문에「哲學」이란것을 希臘語로 「필로소피아」라고한다. 以上의意味가 이術語에서도 明示됨을알겠다. 「필로」란것은「사랑」한다는것이며「소피아」란것은「知識」이란意味인즉「哲學」이란 그當時에잇서서는一般的으로知識을「사랑」한다는것이다. 그뿐만아니라이와갓튼 根抵에는 最初부터 唯物論的見解가 明*白*하게 表示되어잇다는것이다.

그런데 人間社會에 各方面의思想 經驗等이 蓄積하여감을싸라서 그모든것을 總括하며 系統的으로確定할必要가 自然發生하는것이다. 即以上에도말한것이 지만여기에서 이와갓튼必要에서 科學이發達한것이며 쏘는하는것이다. 그러나

希臘歷史에잇서서와갓치 그發達의最初期에잇서서는 科學과 哲學의區分이란 것이 明瞭하지아니하였다. 그當時로말하면 生産力의發達과 社會의一般的關係가 變化함을싸라서「自然界」와「人間界」의모든現象에對하여「驚嘆」을 늦기며 疑惑을 품게된다. 싸라서그解決의講究에 勇進하게된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哲學」이란 一般的科學을 包含할수는업섯스며 업는것이다. 歷史의必然性에依하여 漸次로科學은 科學대로 그專門의部門의 責務를 漠然 하나마다하게되였다. 於是에 科學은 哲學에서 分離하게되였다. 이와갓치 分離한 專門的科學으로말하면 그專門의部門의役割만을 다하게되며 싸라서 部分化하게되였다. 여기에서 그部分化한 各部門의 統一과 또는 더욱複雜하여질 수록 그具體性이 더明確하게 表現되지만또그反面에잇서서는 너무部分化함으로써 全體的統一을無視하게되며 그根本的精神을 忘却하게되여서 一般的으로 더욱疑惑을 만케한다. 여기에잇서서 그知識의眞理와過謬와 相互間의統一性を 論하게되며 그相互關係及 相交作用을 明證함으로써 人間의生活及 그認識을 發展시키며 確立시키는것이다.

그런故로 以上과갓튼데對한解答으로말하면 一般的이며 그것은 第一抽象의 이다. 卽 모든存在의原因은무엇인가?世界한엇던것인가?그것은 現在우리肉眼으로써보는것과갓튼가?或은그것과는 相異한것인가?精神이며物件라는것은 무엇인가?世界는어더케하여 認識하는가? 眞理라는것은 무엇인가?세계의萬有는어데 依存한것인가?人間의認識에는限界가잇는가?萬一에잇다고하면그것은 어데까지에잇는것인가?하는問題를 解決할려고한다. 이와갓치 全體的問題에對한 確乎한解答如何으로써그部分的解決에關係되는것을 自明的으로 表示함이다.

그러나 以上과갓튼 疑問을 解決함에잇서서 注意할것은 처음에는 二種의方法이잇섯다는것이다. 그것은宗教와 哲學의 二方面이다. 問題는 宗教에對하여서가이지만 그것은 最初期의發達에잇서서의 必然성과 哲學과의 不可分離의關係가 讚在하엿기때문에 그起源의必然성과終結의必然성을論하여 哲學의 더욱辯證法的唯物論의意味解釋을 明白케할려고한다. 第一에잇서서는宗教는 以上에서論한 疑問을 解決할려고함에 當하여最初期의 아즉 生産手段의發達과 科學發達의 不足으로因하여「自然界」와「人間界」의 모든異常한變化와 現象에對하여「驚愕」한것이 그대로心理적으로 反映되여서 그와갓튼 不可思議의 問題의解決을「超自然力」이며 不可思議의 精神(當時에는靈魂과同意義로使用되였다)에對한 威脅과 싸라서 그것을「信仰」하게된것이다. 이「信仰」에는 自然的으로發生한것도잇스며 意識적으로 創造한것을 信仰함으로써「解決하였다」고하였다. 그結果로써精神은 肉體로부터 分離한것이며 精神은 肉體以上の絶對성을가진者이다. 그것은社會現象의 무엇을 表非함인가. 分業으로因하여 在來의

組織的勞働은 管理勞働에잇서서의 分離를招致하였다. 그런故로種族의長老는 生産에잇서서 싸인經驗의保管者로써 生産關係를 組織하며 管理하며命令하며 勞働의計劃을 確立하며活動의創造的原則을 創作하는 反面에잇서서는 絶對로 服從하며 上官의命令대로 實施하며 他人의意思에依하여行動한다는것이다. 이것은 希臘初期의 奴隸的社會制度를明言함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希臘에만 限한것이아니고 數千年間을 繼續한것이다. 그宗教의信仰의 對象으로말하여도 黑人들은 그것이亦是 黑面을가진것으로알며 그들의 意思를代表한것이다. 그神은 絶對的이라고하여도 一定한社會組織의影響을 받는것이다. 마치 三越의「쇼-윈도-」에出現하는「마네-킹」人形을볼새에 그것도 漸次純日本衣裝으로부터 洋裝으로變하는것을보는것과 同一한反映이다. 그러나 科學으로부터 分離한哲學이란것은 모든科學을 土臺로하고 그것의確實性を根據로하고서의 全體的統一과 그相互關係와相互作用을論하는것이다. 그런故로 哲學이란것은「모든科學의科學」이된다. 即各專門的部門으로 區分되어잇는 專門的科學의知識을總括하여 全體的基礎的世界觀 即基本的運動의原理와 그全體的統一을 問題삼는것이다. 그런故로科學의發展과 그것을土臺로한哲學의確立으로써宗教는 벌서그形態를 認定할수업게되며 싸라서「썰조와」社會에까지必然性を가진 宗教는 唯物論的科學과 그것을土臺로한世界觀의確立으로써「宗教는私事」라고한意味를 明確하게把握할수잇으며 더욱宗教에對한 克服의 必然性を 認識하게되는것이다.

三

以上에 哲學이란것이 엇더한것이며 그것은 무엇을 하는것인가하는것을 알것이다. 勿論哲學에잇서서 理論的問題를論할새에는 永遠不變의 同一한原則이 잇서서 鐵則으로써 數千年間思考方法을 一律로支配하여 왔스면 하겟지만 事實에잇서서 發展하는동안의 歷史란것은變化가 無雙하며 그結果로因하여 勿論 그具體性及全體성이 具現하게되였다. 또 過去의것을論할뿐만아니라現在의것을 볼새에도 그것이一律的의아니다. 그러기때문에거기에는 여러가지變遷이 잇섯스며 그가운데는 必然성이內包되어잇섯다. 그것은 辯證法的唯物論이 明示하며 싸라서 모든變遷의形態를 證明하며 그社會의反映을 確證한다.

希臘以來의 哲學史를볼새에 最初期에는 自然界研究의時代였다 거기에는「타-르레쓰」等の「이오니아」學派가 잇서서 萬物은 變化한다는等思索으로出發하여 天地構造說을말하였스며 또한편에는「팔메니데쓰」를 開祖로하는「엘레아」學派가잇서서 前者와는 相反하여 流轉說을 否認하고「有」에對한思想 形而上學的의思索을爲主로하였다 그러나 西曆紀元前第七世紀乃至第六世紀에는 벌서希臘의社會는 變하였다. 生理學 醫學 數學 星學等이發達함을 싸라서 生産關係에變動이 생기게되였다. 싸라서「아테-네」를中心으로하고 政治的活躍의 볼

만한것이만었다. 따라서 在來의 自然界의探求是 人間界의 探求에 全力을注하게되었다. 그것이「소크라테스」부터의 哲學이다. 웨그러나하면 從來의奴隸勞働으로말하면 技術上으로보아서進歩하지아니하는것이다. 아니進歩하지아니할뿐만아니라 도리혀 在來의技術에對하여 劣下하였스며 따라서 生産力의發展에 障礙가生하며 따라서 從來로보아서 自然科學方面에 從事하던 所謂無產自由人들의 興味를 減少식켰다 그結果로 問題되는것은 인제는 自然界에對한것이아니고 社會가中心이되는것만큼 支配에對한觀念이發達하기始作하였다. 따라서 人生은엇더케살가 國家는엇더케統制할가 經濟는엇더케할가 엇던것이善인가 엇던것이惡이며 엇던것을許하여야되며엇던것을 禁하여야될가 하는등이 그中心問題가되였다

이것으로因하여 唯物論的世界觀은 觀念論的世界觀으로 그方面을轉換하게되었다. 그것이第一甚하게 表徵되는것은「플라-톤」以來의 希臘哲學이다. 卽「플라-톤」에잇서서는 從來의 自然科學等에서 立論한것과는 그根本的立場이顛倒되였다. 經驗的인現實世界란것은 物質的世界와는 獨立하여잇는 不滅의理念 卽不滅의精神의原像의模寫에 不過하다는것이다. 이와갓튼觀念論의哲學은 當時의 最高頂點에達한 奴隸勞動의矛盾의 最尖端을 鈍化하며 그것을 美化하며 그永久性을助長식킬려고한意圖로나온 것이다. 卽哲學에잇서서理念이모든것을 支配하게됨을따라서 社會에잇서서는 理性的인者が 모든 것을支配하게된다. 이것이 다시宗教와握手하게 되어서 社會의中心勢力을 形成하였다. 그것이結局은中世紀의神의王國 卽暗黑時代를 演出하였스며 그것이 變形한것이「쓰콜라」哲學이다. 그런故로 自然科學方面이란것은 全然그形體를 消失하고 말었다. 勿論十三世紀中葉에「R·쎬-큰」이나서 自然科學的唯物論的希臘哲學에 着眼하여 自然界의研究가잇섯스나 教會의壓迫이甚하였다. 그러나中世紀의歷史도 그歷史性を 發揮하게되자 다음時代로變遷하였다. 그것은 한便에잇서는羅針盤의發明活版術의發明 火葉의發明 亞米利加新大陸의發見 印度로到達하는航路의發見「코펠니쿠스」의地動說等 여러 가지發明發見과地理上及學術上の發見으로因함시오 또한便에잇어서는 封建制度의衰頹 市府의興起 國王權力의增長 國家統一의傾向等 社會組織에 여러 가지變動이잇기때문이다. 이와갓튼氣運은畢竟은宗教自體內에도 勃興하여 宗教改革의歷史까지잇게되였다. 以上과갓튼 十五六世紀부터의近世哲學은 自然科學的發展과 相伴하여物心二元論인「데칼트」哲學이 十七世紀初에 出現하였다. 以上에論한바모든發見發明으로因하여 佛蘭西及英國에잇서서는 自然界에關한科學及 唯物論的哲學이 發達하였다. 그것은亦近代의 社會組織을明示하는 것이다. 그것은「썰조와지-」의發展階級이다. 이新興「썰조와지-」의勢力은 英國及和蘭으로부터 十八世紀에

잇서서는 佛蘭西로最後에 獨逸에까지 發展하여 그特有한 氣勢를 發揮하였다. 그러기때문에 「쉴조와」의 世界觀의 最高階級은 獨逸에잇서서發達하였다. 더욱獨逸은 다른英佛에比하여 늦게發展한것만큼一般的으로 進歩된 高度로發展된 觀念形態를가지게되었다.

獨逸觀念論의哲學은 「칸트」(一七二四-一八〇四)를지나서 最高絶頂은 「헤겔」(一七七〇-一八三一)에와서 終結을매짓다. 이것이 思辨哲學의代表者이다.

四

「헤-겔」의哲學은 觀念哲學의 最高絶頂인것만 觀念論의特性을明示할뿐만 아니라 그矛盾性도 明白하게 內包하였다. 「헤-겔」哲學에잇서서는 絶對的精神이 物質的現實性 即自然及歷史의 動力이며 創造者가된다. 따라서 「헤-겔」은 根本的인것은 中世의基督教가그것이다 그런故로 封建的生産方法 封建的中世의階級的秩序政治의形態等 모든 것은 全部 여기에서 發生한다고하였다 그런故로 「헤-겔」에잇서서는 그根本的思考方法이 더욱精神과自然 客觀과主觀의關係가 顛倒되었다. 이것이唯物論과의 正反對되는 根本的要因이다. 그것은 「헤-겔」哲學이 在來의成果 即精神的이며 形而上學의見解가되기때문이다. 그런故로 「헤-겔」의哲學은 宗教와의 關係에잇서서 小毫도 矛盾이없다. 그러나 「헤-겔」에잇서서의 功績의偉大한것은 「全自然的 歷史的及精神的世界가 一個의過程으로써 即不斷의運動變化 轉換及發展으로써把握되었스며 이運動及內部的關係을 指摘하려고 全圖하였다.」는 것이다. 「헤-겔」은 이와갓튼見解를 가지고도 그것을 그立場을 完成하지못하였다.

여기에잇서서 「헤-겔」의哲學을 批判함은 觀念論一般을 批判함이며 宗教를 批判함은 當時의觀念論의思想의 總體를批判함이다. 이와갓튼任務를 行使한것이 「헤-겔」의弟子인 「포이엘싸흐」(一八〇四-一八七二)다. 이엘싸흐」는 「헤-겔」哲學에잇서서의 普遍의概念으로써의 「理會」에對한思想을 根本的으로 顛倒시키었다. 그런故로 「포이엘싸흐」는 存在와思惟를論함에잇서서 自然에對한 感覺的經驗이 基本이되여서 思惟로 惟移 된다고하였다. 그런故로 思惟로말하면 存在에依存한 것이다.

따라서 思辨哲學에잇서서는 精神과 自然은分離되어잇지만 「포이엘싸흐」에잇서서는 그것은統一됨으로써 進展하는것이며 認識이成立되는 것이다. 即 「헤-겔」은 神과人間과의關係모양으로 絶對的의念을神化하였스며 思惟와存在의 同一性을認定하였지만 그것도 神學的解釋에不過하여 「存在는理性的이며 理性的인것은 存在한다.」고하였다.

그다음에 「포이엘싸흐」는 神學的인것을 人間的으로轉化시키었다. 「基督教

의本質」이란著書로써當代의 一般的神學的思想에 巨彈을投하였스며 그非를 闡明하였다. 그런故로 「포이엘싸흐」는 神을 人間化하였다. 一般의人間을 根本的으로하여 立論하였다. 따라서 絶對의神에對하여 그歷史的規定性을 表示하였다. 이것이 人間學을 中心으로한 「헤-겔」의觀念論을唯物論으로 轉換시킨 「포이엘싸흐」의 唯物論이다.

「포이엘싸흐」는 觀念論을 批判하며 그것을唯物論으로 轉換시키였스나 「헤-겔」哲學에잇서서의 思索方法의氣分이 稀薄한것과따라서 自然科學의唯物論에 근친것과 人間을 活動的으로보지아니하였스며 또는社會性을 無視한點과 對象이며 現實이며 感性이 다만客觀의또는直觀의形式으로써 把握되고 感性의人間的活動 實踐으로써 把握되지아니하였스며 主觀的으로 把握되지아니한모든點이 그의哲學에잇서서의缺陷이다.

五

以上에서論한바와갓치 「포이엘싸흐」는 自然科學의唯物論에 근치였다. 그런故로 辯證法을 自然科學과 歷史에잇서서 適用하지못하였스며 歷史的變遷에對하여서는觀念論的見害가 아즉남어있다. 이와갓튼 「포이엘싸흐」의哲學即自然科學의唯物論을 超越하여 決定的進步를 決行한것은 「맑스」와 「엔겔스」의 兩人이다.

그러나 이兩人을論하기前에 辯證法唯物論史에서 빼지못할 「디-츠겐」(一八二八-一八八八)에對하여 論할려고한다. 「디-츠겐」은 唯物論의 歷史的變化를 唯物論의辯證法的性質을 特히高調하였다. 即事物을發展의見地에서보며 모든人間의知識의 相對的性質을理解하며 世界의모든現象의 여러 가지關係와相互關係를 理解하며 이와갓치하여 物理的進化的唯物論을 歷史의唯物論的見解로進行하는必要를 高調하였다. 그러나 이方面을 高調할려고하였기때문에 「디-츠겐」은 人間의知識의相對的性質에 立脚하면서 觀念論과 不可知論에對한 不正確한 讓步로因하여 混亂에빠졌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全體的으로보면 「디-츠겐」은 唯物論者다. 「디-츠겐」은 僧侶主義와 不可知論의敵이다. 即「디-츠겐」은 「맑스」나 「엔겔스」와는 獨立的으로 그自身이 辯證法的唯物論에 到達하였다. 그러나 決코 「맑스」나 「엔겔스」와 相異한 特殊한哲學體系를 立論함은아니다. 그런故로 「맑스」 「엔겔스」는 大讚意를表하였다. 即 「엔겔스」는 「우리의最善의 道具요 第一銳利한武器인 唯物論的辯證法은 우리들뿐만아니라 獨逸의 一勞働 「요셉푸 · 디-츠겐」에依하여 활용하게 더욱우리와는 全然獨立하여 發見되었다. 」고말하였다.

다음에는 「맑스」(一八一八-一八八三)과 「엔겔스」(一八二〇-一八九五)의 辯證法的唯物論에對한것을論하겠다. 이兩人은十九世紀의 二十年代及三十年代를

支配한哲學者「헤-겔」의弟子며 또「호이엘싸흐」의弟子다. 그런데 그辯證法的唯物論의發展으로말하면 그것이 獨逸哲學에서만 發達한것이아니고 其外에英國에잇서서의 階級鬪爭과 佛蘭西의革命의影響을 받은結果의産物이다. 即獨逸哲學에서의 思索方法即「헤-겔」의辯證法과 英國에잇서서의 歷史的過程의 唯物論的說明과 佛蘭西에잇서서의 急進的精神과를 合하여된것이 辯證法的唯物論이다. 「맑스」는 辯證法은 現實的物質世界的 普遍的運動法則과이法則에適合한 人間頭腦에잇서서의 思惟法則과의總合이라고하였다. 即現實的唯物論世界는 辯證法的이요 辯證法에服從하는것이다. 또人間의頭腦는 物質世界的 構成一要素라고하는意味에서 辯證法은 人間頭腦에도 表現된다即辯證法은 自然人間의思惟 歷史의三方面에서볼수잇는것이다.

辯證法的唯物論은「맑스」主義의哲學이다. 十九世紀의九十年代의末에잇서서이辯證法的唯物論을 修正하려고한「베른슈타인」等의新칸트派가擡頭하였다. 여기에 對抗하여 論爭한것이「플레하노프」의한사람이다. 그러나 이修正派의批判的思想은 當時의露西亞에도 出現하였다. 여기에는「플레하노프」와「레-닌」이第一線에섰다 一九〇五年의革命直前에잇서서는 새로또新修正派가 出現하였스니 이것은「마흐」의新物理學에基因한「마흐」派의 「북다-노프」及「루나찰쓰키-」等이다. 이와갓튼自然科學的純經驗批判論」으로써 그것을徹底的으로批判하였다. 이와갓치함으로써「레-닌」은 經驗批判哲學의 觀念論的本質을 暴露하며「맑스」主義의 哲學的根據인 辯證法的唯物論과의 對立을 明白히하였다. 그리고「레-닌」의 그哲學에 잇서서는 具體的說明과 哲學의 階級性を 論한것이特長이다. 그뿐만아니라「레-닌」哲學에잇서서는 理論과實踐과는 分離할수없다는것을 더욱高調하였다.

資本主義의 極度로發達함을사라서 階級鬪爭은 激化하며 社會狹小化는 國際的으로된다. 이세에잇서서 主義할것은「멘쉬비끼」的「이데올로기-」의問題다. 그것은다시「쉴조와」科學이 그危機에 當面한것만치 反動化하여自然科學者들의 不可知論的傾向 即神秘主義에로 遁逃하는傾向을 招致하였다. 그結果는 自然的으로 宗教와의握手다. 여기에 今日的 「푸로레타리아」科學의 必要와 그眞正한科學의發展에 基因한 辯法的唯物論에對한徹底的한 理論발전의急務가 發生하였다. 사라서「플레하노프」의哲學을 再次檢討하게되었다. 「플레하노프」의哲學은 機械論的拆衷主義的方面과 反映論에對한無理解 認識論에對한「호이엘싸흐」的傾向 多少의「칸트」主義的色彩等を 包含하며 이것을「멘쉬비끼」主義에서 引用하게되었다. 사라서「세보-린」도 그「푸레하노프」의傾向을 繼承하였던것이다. 露西亞에잇서서는 이「푸레하노프」主義를 繼承한「세보-린」主義가 膨漲하였스며 그것이 漸次「맑스」主義哲學을 修正하려고하였다. 사라서「레-닌」이 高

調한 理論과 實踐과의 不可分離를沒却하게되었다. 그러나 「셰보-린」을 「칸트」主義며新칸트主義의性質로써 「맑스」主義를 修正하려고한다는것은 「셰보-린」主義의 理解가 不足한者이다. 只今 露西亞에잇서서의 修正派의傾向은 二種이 있다. 第一은 칸트主義及 新칸트主義的傾向이 그것이요 第二는 根本的으로는 「헤-겔」主義로集中하는 極히巧妙한 觀念論的傾向이다. 「셰보-린」主義는 後者에屬하며 그것은 唯物辯證法과 觀念辯證法概念과客體와를 同一視하며 概念을現實에서分離시키며그概念을 獨立한存在라고하며 現實에對한 眞正한具體的研究가업시 辯證法을 全體를包括하는合鍵이라고해야概念의辯證法을 具體的知識에서 分離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셰보-린」의 過謬를檢討하는에 「레-닌」의唯物論과 辯證法의모든에잇서서의 「맑스」主義의學說을 具體化시키며 發展시키며 新具體的實證에對한理論을 具體化시키며 發展시키며 新具體的實證에대니理論을展開시킨것을 잘理解할것이다. 여기에서잇서서 第一 必要한것은 從來의 辯證法과 自然科學을 結合시키는問題가아니고 辯證法을 科學的研究의武器로하여 生産力技術 生産關係 歷史的可能性及歷史的必然性 또는歷史에잇서서의 主觀的要素와 客觀的要素의 問題를具體的으로 理論展開시킬것이다.

六

辯證法的唯物論이란 엇더한것인가하는것은 以上에서 大略 理解하엿슬줄로 밋는다. 即그것은辯證法的方法으로써의唯物論的世界이다. 그런故로 希臘古代의初期의自然哲學時代의 唯物論도아니고 十八世紀의「포이엘싸흐」의唯物論과 갓튼 純自然科學的唯物論도아니며 機械論的 經驗論的 感覺論的 實證的 唯物論도아니다. 그것은 對象 理實感性을 感性的人間的活動 實踐으로써 把握하며 主觀的으로 把握하는것이다. 卞라서 眞理는 實踐가운데잇는것이다.

그런故로 辯證法的唯物論은 觀念論과는 判異하다. 「헤-겔」의哲學에잇서서는 方法에잇서서만은 그것이辯證法이지만 根本的으로 그것은觀念論인故로이辯證法的唯物論은아니다. 그러면 唯物論과 觀念論의 差異는어데잇는가. 그것은 自然과精神 客觀과主觀 存在와思惟의問題다. 이와갓튼關係에잇서서 觀念論은 自然이란것은外界의獨立的存在가아니요 意識에 存在한것이라고한다. 그러나 이것을 唯物論에잇서서는 自然이 意識에 存在한것이아니라 自然은 意識과는 獨立하여 存在하는것이며 人間은 自然의 一部分으로써 더욱 그意識作用으로 因하여 自然을 精神에 反映하는것이다. 그런故로 觀念論과는 正反對의 關係에있다. 卞라서思惟란것은 다만意識에依하여야만「나무」를알게된다. 그러나 同時에 우리는 意識가운데서 卞「나무」와 我를區別하는것이다. 그런故로 思惟는 可能하다. 卞라서 現實的事物에相應하는 觀念이잇슬뿐만아니라 卞純粹한

主觀的觀念도있다. 이것이 唯物論에잇서서의客觀과主觀 存在와思惟에對한 根本的原則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對象의觀察이 自然히 即自的即「그것만」으로써 보는재와 그것을 向自的即다른것과 對立시켜보는것의 二種의觀察方法이 생기게되며 그結果이二種의 觀察方法을 綜合함으로써 即自的向自的의觀察方法이 完成하는것이다 이것이 後에다시評論할려고하는 辯證法的觀察을 意味하는것이다. 그런故로 在來의所謂機械論的이나 形而上學的觀察의한便에 偏重된 觀察로 말하면 그完全性を缺한것이다. 萬一에 機械論的 形而上學的의한便에 偏重된觀察方法으로말하면 自然히 靜的觀察方法을産出하며 여기에서 不知不識間에 現實性的根本的的要因을 忘却하게되는것이며 그것이 觀念論을 招致하는것이다. 그런故로 觀念論에서 自然과精神을分離시키며 精神을 모든 存在의基礎라고하는 理論」으로말하면 그것은 벌써希臘歷史以來로 長老와 奴隸의關係가 絶對적으로分離한것과 或은 그以後의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에 잇서서의 分離와 따라서 長老와 支配階級の絶對성과 그神聖한것을 表示한것이며 따라서 그理論으로써 그關係를 永久化시키며 矛盾성을 隱蔽시키며 그 惡化를 美化시킬려고 한것이다. 이것은 다만 哲學에잇서서만限한것이 아니고 宗教에잇서서의 神의絶對성을表示한것이며 그것을 規定하는것이다. 理性的絶對성은 이것을 明示함이다. 그러나 唯物論은 그것을 反對한다. 그것은 顛倒된것이라고 斷信한다. 存在는 思惟를 規定하며따라서 物質的生産과 그手段은 社會意識을規定한다

存在로말하면 人間的意識과는 獨立한 物質的 素材的性質을 意味한다. 그뿐만아니라 存在를規定하는 思惟도 根本적으로는物質的을맞는것이다. 感覺一般即第一簡單한性質에잇서서의 意識은 生物의存在와 結合하는것이며 그의最高級的發展의 階段인 悟性及理性도 感覺的人間的活動 即實薦성을 意味한 人間과 結合하는 것이다. 그러면 辯證法的唯物論에잇서서의 그方法論인 辯證法이란것은 엇더한것인가.

七

辯證法은 發展에 對한理論이다. 그러나 發展에는二種의 把握方法이있다. 其一은 發展에對하여 다만 增減 或은 反復맞게 認識하지못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生命업는 다만 表而上으로만의 把握方法에不過하다. 그러나 其二는 發展의 基礎를 對立한것의統一과 그統一이 再次分裂하는가운데서 即實在物이 自身運動하고 잇는것을 把握함이다. 이後者야말로 「모든實在物은 各々 그內的矛盾으로因하여 運動하며 同時에 그것은 對立物로 分裂하며 그對立物은 다시 一個의 共通的結帶로因하여 一個의交相的聯關에依하여 統一된다는것으로부터 出發하는것이다」換言하면 「辯證法이라고하는것은 엇더케하여 對立物

이 同一化할수잇슬가그리고또同一한가(엇더케해야對立物은 그러케되는가)엇던條件下에서 그것은 서로轉化하여 同一되는가 왜 人間悟性은 이런對立物을 죽은固定한物件으로써觀察하지아니하고 산 制約받는 運動적인 서로轉化하여相合하는것으로써 觀察하지아니하면아니되는가하는데對한學理다.]

이辯證法으로말하면 發展의理論인만큼 그것은 一二百年前에처음 發見된것이아니다. 그것은별써 長久한歷史를 아나人間의理論的生活이開始되는 初期부터 發展된理論이다. 그것은 일즉이 希臘初期의 自然哲學時期에서부터 觀察할수잇는것이다. 第一그것이 顯著히나타난것은「헤라크레이토스」의哲學이다. 그러나 그時代로말하면 生産力이아즉 發達되지못한時代인것만큼 그發達은亦是一部分的이였다. 그런故로 여기에서 辯證法의發展한歷史에對한것을 三階段으로 區分할수있다. 第一期는이希臘古代의 自然哲學에잇서서의「헤라크레이토스」다. 初期의 아즉生産力의發達이 幼稚한時代인것만큼 自然에限한辯證法이였다. 그런故로 그것은 時間的流動的辯證法이다. 即縱(나하아이난더-)의辯證法이다. 그러나 第二期로말하면 별써 希臘의生産力은 發達되였스며 그後에繼續한 奴隸制度의時期와同時에 固定的思想이必要하게되였다. 即「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의辯證法이 이것이다. 이것은 前者의縱에對하여 橫(네-벤아이난더-)의辯證法이다. 그러나 이것을 否定한것은亦是辯證法이였다. 그結果로 第三朝인 即前兩者의 發展過程을結合하며 그것을 一層高級의發展階級으로 高揚한것이「헤-겔」의辯證法이다. 그런故로 이것은 縱橫을綜合한 辯證法이다. 그러나 注意할것은「헤-겔」은「쑤조아」社會에 낫스며 그것을反映한것이다. 그런故로「헤-겔」의辯證法은 觀念論的辯證法이다.

그러나 辯證法은「헤-겔」에와서 그正體를 出現하였다. 「헤-겔」에와서 完全히辯證法은 自然歷史及 思惟에適用되였스며 그發展過程을 說明하게되였다. 그런故로 「헤-겔」의 이觀念論的辯證法을「디-즈겐」「맑스」「엥겔스」는 唯物論的辯證法으로 轉換시키였스며 사라서그本質을 如實히說明하게되였다. 그唯物論的辯證法을「레-닌」은더욱 具體的事實으로써 現實성이 豊富하게 發展식켰다. 그런故로 辯證法은 모든科學研究에잇서서의 武器며 哲學研究에잇서서의武器가된다.

이와갓치 發展하며 理論的武器가되는 辯證法은 發展을 엇더케說明하며 그根本的法則은무엇인가. 第一은對立物의統一이다. 辯證法은 發展의理論이기때문에 그것은 事物의運動을前提한다. 於是에 對立한것은 統一되며또그것을 統一한다. 사라서 모든事物은 統一되며또그것을 統一한다. 사라서 모든事物은 統一되지아니하는것은업다. 그런故로 이統一이란것은 對立物을止揚(調和하지만 그本來이性質을 一層더高級인階級으로發展시키는것이다)하여 一層더그

것을 規定하는것이다 勿論이概念中에는 別서分裂이란것은 包含되어있는것을 注하여야한다. 運動으로因하여 事物은 分裂하여 對立한다 그러나그것은 空間에서만있는것이아니고 時間上까지意味하는것이며 그運動이 無限히 繼續하는故로 여기에서 無限性的概念이 發生되는것이다. 即 無限한多樣성이 統一되어나가는過程이 모든事物의現象이다. 이것이 辯證法에잇서서의 兩面性이며 여기에서는 또全體性を前提하는것이다. 部分에서 即多樣으로부터 統一의過程을 通하여 發展하는關係로 傅粉성과同時에全體성이觀察되며 特殊性和 同時에 普遍성이 觀察되는것이다. 靜止의狀態는全體的運動狀態의一部分이다. 그런故로 感覺的知覺으로서만으로도 아니되며 그것을써난 普遍的概念도 無意味한것이다. 希臘에잇서서 奴隸所有者와 奴隸를 各其分立시켜서 觀察할수도업는것이며 그것을絕對的對立이라고도 觀察할수도업는것이다. 그런故로 絕對性이란것은 時間的空間的規定을맞는것이다. 萬一에그러지아니하면 그것은 形而上學的이되고만다. 靜的觀察을動的觀察로 轉化시키는것이 辯證法이다 그런故로 「썰조와지-」의發達の初期에잇서서는 辯證法을 歡迎하였지만 그成熟함을 싸라서 否認하려고하는것도 그必然性を內包含이며 그原則을 辯證法이 明示하며 解決한다

辯證法의第二의根本法則은 否정의法則이다. 이것은思惟의運動에잇서서 第一普遍的인法則이다. 모든運動과變化에對하여 妥當性を가졌으며 現實의것이며 그것의反映인概念에도妥當한것이다. 그런故로 事物의 運動變化를反映하는 思惟에잇서서의 普遍的樣式이다. 否定이란것은 肯定을 하는것이다. 이와갓치 思惟法則의 出發點은 肯定的規定이다. 이것이「테-제」(正)다. 그러나運動에잇서서는 肯定은否定되어서 그와反對의것으로 轉化한다. 이것이 反對規定 即「안티테-제」(反)다. 그러나 肯定이 不定되어서 反對의것으로變化하며 그것이 一層더 高級의階段으로 發展한다 .그럼에는 否定을다시 否定함으로써「테-제」「안티테-제」는 最後의階段에綜合된다. 이것이 否정의否定이다. 여기에서야만 運動變化가 可能한것이다. 그런故로 第一의 對立物의信一規則을 誤解하면 偏重하게됨으로 所謂「改良主義」가되는것이요 第二의 否정의法則을 誤解하면 以前것이 變하여 새것이되며또엇더한關係를 가지고잇는가하는것을度外規하게된다. 여기에서는 根據를確定치못하는 無政府主義的見解가되고만다.

最後로 第三의辯證法의根本法則은 質로부터量에로의轉換 及量으로부터質로의轉換規定이다. 質은 量을否定한것이며 量은質을否定한 것이다. 量이 一定한程度까지進展增減함으로써 그全體的質이 變하는것은 自然科學歷史及思想法則에잇서서 證明되는 것이다. 水가 量의變化로써 蒸氣及氷으로變하는것 生物에잇서서 細胞의增減으로써 有機的性質이變化하는것 등을볼때에 全體와總

和의差異잇는것은 全部이것을證明하는 것이다. 그리고質은否定하며 사라서
그것이變化함으로써 量을變化시키는 것이다.

八

自然 歷史 思惟에잇서서 그것을把握할려면 이것은 唯物論的解說이 그正確
을證明하며 또 그것은 發展하는것이기때문에 그根本的變化의原理는 辯證法
이 發明한다는것은 以上에서論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思惟에反映되는때에
는 그것과 思惟와의關係가 問題되는것은 勿論이다. 이것이 認識의問題며 사
라서 眞理에對한問題다. 人間의 感覺器官으로말하면 普通生物에잇서서의 그
것과는判異한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制限된 것이다. 例를 들면 紫外線갓튼
것이라던지 黴菌이라던지 遠距離의天體等에對한知覺으로말하면 普通感官으
로써는 滿足시킬수업다. 그때에 器具를 即間接的手段을使用하여야한다. 그런
故로 이와갓튼 感官에잇서서의限界性及特殊性을 克復함에는 特別한手段을要
한다. 이것이人間에잇서서 思惟의 止揚性이다. 그것은 思惟의發展에서 볼수
잇는 것이다. 그런故로 「人間의思惟는 最高絶對的인同時에制限的이다. 資質
天威力 歷史的 그窮極目標로보면 最上絶對的이며 無制限的이나 個體的過程
이며 其當時의現實로보면 非最高絶對的이며 制限的이다」

思惟와 現實性과의關係에對하여서는 그것이兩者의關係인만큼 兩者間에는相
互作用이있다. 그러나 注意할것은 以上에論한바와갓치 이런關係 或은相互作
用に잇서서한 便만볼때에는 그것의 最高絶對性을 認定하게되는것이지만 그
反面에잇서서는 그러치아니한것을알어야한다. 그런故로 知覺의無制限性的의 擴
大는 無制限한運動中에서 漸次完成하며 그러나 그것은 漸進的만意味하지아
니하고 大小의差異는잇겠지만 거기에는飛躍이있다

飛躍에對하여서는 여러 가지毀謗이만흐며 더욱그것은進化論을 否認하는것
이라고까지하지만 決코 그런것이아니다. 進化論은 漸次性 即漸次的變化만認
定하지만 이飛躍이란것은 그發展過程에잇서서의 漸次性的의中斷狀態에서 發生
하는 것이다. 勿論 이中斷狀態란것은 그後의發展이 永々中斷되는것이아니고
質과量의關係에잇서서그變化를意味함에不過한 것이다.

自然 歷史及思惟의法則에對한것을 論할때에 그것의眞理의與否를 論한다. 그
러면眞理란엇더한것인가. 眞理란것은 矛盾되지아니하는것을 말함이다. 矛盾
은 誤謬의標識이다. 그러나 여기에論하는것은 矛盾이업다는것이아니고 兩者
가矛盾되는나아니되는나하는問題다. 그러기때문에 論理的으로 綜合하여 엇던
概念이던지 그自體로서는 그眞理與否를 確定할수업는 것이다. 그것은結局에
잇서서 實踐即人間의活動은 人間이 事物을現實的으로 認識하는나아니하는나
그리고 얼마나現實的으로認識하느냐하는데 잇는 것이다. 사라서 絶對的認識

은 가능한나하겠지만 그것은 一時의것이아니고 相對的이며不完全한 認識의 系列에잇서서 그것이 實現되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十七世紀에 英國의 大 自然研究者 「뉴-톤」이 重力의法則을 認識하였다. 그런데 그것은二十世紀에 到達하기까지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더充分하게 公式化하기까지는 그것이 正當하다고하였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法則이 正當하고 「뉴-톤」의法則은 誤謬라는것은아니다. 「뉴-톤」의法則은 眞理에 攄接近하였으며 同時에 不 正確한要素를包含하였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法則은 眞理의더큰要素를 包含하였으며사라서 不正確한要素가 더적다는 것이다.

辯證法은 發展過程을 說明할뿐만아니라 全體性을要求하는同時에 部分性을 要求한다. 그런故로 辯證法은部分的個別科學을 要求하며 사라서 科學의 進步로因하여 世界은더욱複雜化한다. 그러는한便에 宇宙의普遍的觀念을要求하는 것이다. 이와갓튼 統一의世界의形成下에서 個別科學의出發點이發見된다.

九

以上에서論한바와갓치 辯證法的唯物論은 辯證法的方法으로 把握한 唯物論의世界觀이다. 그런故로 發展의根本原理를말할뿐아니라 그것을唯物論的으로 說明한다 그리고 一部分에서는 哲學의 無用을主張하지만 우리는 今日에잇서서 모든科學을 土臺로한 哲學을 要求한다 只今까지는 그것이觀念論的인것만 콤 모든科學은專門化하며 區分化하면 그런대도 全體的統一性에잇서서 缺陷이만혔다. 그뿐만아니라 社會意識形態로써의任務를잘알것이며 그럼으로써 發展하여나가는 現實성을把握할수잇는것이다. 더욱最近에잇서서는 理論과實踐의分離로써 發生이不少하다. 그것의 一例를들면 所謂 「데보-린」派中에잇서서 的 觀念論的轉換의傾向이다. 그結果 觀念과客體를同一視하며 概念을現實에서 遊離켜서 그概念을獨立的存在로轉化시키며 現實을如實히具體的으로研究하지아니하고 辯證法을 全部를包含하는合鍵이라고하며 概念의辯證法을 具體的知識知識으로부터 遊離시킨다. 今後의哲學의問題는 모든科學과 聯關하며 具體的知識이며 科學 例를들면 自然科學이며 歷史等과結合하는것이된다. 그러나 우리는恒常注意할것은 이와갓치實證的科學에만限하게되면 그것은辯證法的의意味를忘却한것인즉特히注意할것이다. (끝)